



.....  
.....  
.....  
.....  
.....  
.....  
.....  
.....  
.....  
.....

#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양돈장 필수 실천사항

## 1. 도입돈은 3주간 격리하여 관찰한다.

후보돈 및 후보양돈의 도입시 질병 발생 유무를 확인 할 수 없어 별도의 격리돈사를 마련하여 세심히 관찰한다. 도입시 지속성 항생제 주사를 실시하고 백신접종 계획을 세운다. 도입 5일후 콜레라와 돈단독 백신을 접종하고 10일째 파보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다. 사료섭취 정도를 매일 점검하여 건강상태를 세심히 관찰한다.

3주가 경과하고 별다른 징후가 발견되지 않으면 분만사 포유모돈의 후산을 경구투여하여 농장내 질병에 대해 순응토록 한다.



조 상 욱 원장  
중앙동물병원

## 2. 사람 및 차량의 출입제한을 엄수한다.

모든 질병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부사람이 방문하였을 때 방역복을 준비하여 갈아 입도록 하고 방역장화 착용과 손을 소독약에 씻은 후 출입을 허가한다. 농장내 직원 또한 외출 후 특히 타농장 방문 후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저한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사료차와 출하차 및 약품차가 방문하였을 때 분무소독은 물론 차량 하부와 바퀴를 철저히 소독한다. 특히 돼지를 운반하는 차량과 돈분차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 3. 예방주사를 철저히 한다.

질병발생은 수평감염과 수직 감염 2가지 형태로 농장내 모든 돼지에게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수직감염은 끊임없이 발생이 반복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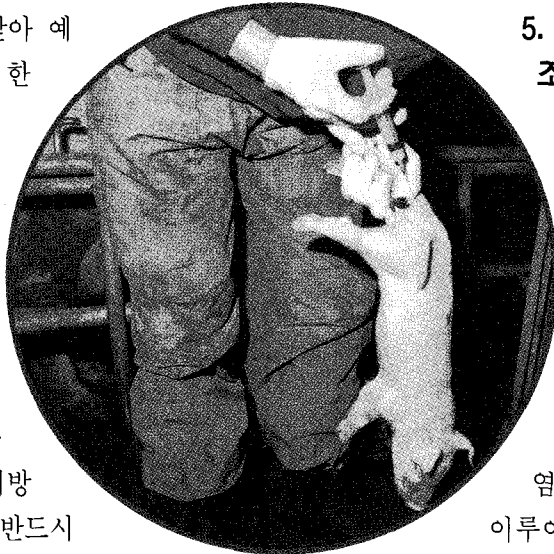
정확한 질병 진단을 받아 예방 프로그램을 세워야 한다. 분만예정전 모돈에게 소화기계통 백신과 호흡기계통 백신을 주사하고 분만후 콜레라와 단독 그리고 파보바이러스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자돈에게는 주로 호흡기 계통의 예방약을 발생 시점 전에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요즈음은 2가지 이상의 병원체가 복합 감염되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혼합백신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이제는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서는 양돈을 할 수 없을 만큼 상태화되고 만성화된 양돈장이 많아졌다.

### 4.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질병을 죽인다.

돼지가 이동을 하고 난 후 돈방은 수세와 더불어 소독약을 이용하여 청결히 해줘야 한다. 돼지가 이동시 분무 소독을 하여 새로 입식되는 돈방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분만사와 이유 자돈사는 면적이 작은 어린 자돈이 사육되므로 가능한 한 병원성 미생물이 잔류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요즈음은 2가지 이상의 병원체가 복합 감염되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혼합백신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 5. 질병은 조기 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발견이 늦어지면 같이 사육하고 있는 모든 돼지에게 감염되어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태가 심해지거나 만성화되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매일 돼지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사료섭취정도, 눈상태, 기침, 파행여부 및 기립불능, 피부 상태 등을 관찰하여 환돈이 발견되면 즉시 격리시켜 치료를 해준다.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3일간 꾸준히 하여 완치되도록 한다.

이때 환돈은 청결하고 쾌적한 돈방을 마련하여 수용한다. 또한 더 이상의 발병을 줄이기 위해 소독을 자주 해주고 환경을 개선 시켜준다.

### 6. 사료는 적정량을 올바르게 먹인다.

어린 사료에는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출하 예정돈은 반드시 비육후기 사료를 급여해주고 만일 항생제를 첨가했을 경우 휴약 기간을 준수한다. 사료는 허실이 되지 않

도록 급이통을 조절해 주고 돼지 크기에 맞는 급이기통을 준비하여 출하 직전 절식을 시켜준다.

### 7. 약제 남용과 잔류일을 준수하자.

돼지를 사육하다 보면 질병발생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약제선택과 사용량, 사용기간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약품에 따라서 휴약기간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도축시 잔류되지 않도록 한다.

### 8. 질병 전문가에게 정기검진을 받는다.

법정전염병의 발생은 양돈사양의 최후의 길이 되므로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항상 주의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단계별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내 농장의 피해도 크지만 주위에 있는 양돈장에도 전파되어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난다. 전문가에게 농장을 진단 받아 방역프로그램을 세워 청결한 사육을 하도록 한다. 요즘은 전산 관리와 질병관리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곳이 많아졌다.

### 9. 위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한다.

농장마다 관리프로그램이 다르다. 이것은

농장내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질병 발생이나 상재하고 있는 병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백신과 소독에 있어 방법과 약제선택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빠짐없이 실시해야 한다. 또한 쥐나 해충이 전염병 발생의 매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 10. 돼지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여름에는 햇빛 가림을 설치하여 자외선 및 적외선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하고 겨울에는 윈치커튼을 적절히 조절하여 빛의 양이 적지 않게 한다.

돼지 이동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돈방이 밀사되지 않도록 한다.

### 11. 청결한 관리와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빈돈방은 수세와 소독을 완벽히 하고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돈사와 돈방출입시 소독조를 밟고 통과하고 돈분제거 기구와 소모품은 돈사별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돈분장이나 부검장 출입시 기구와 사람은 철저히 소



▶비육사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환기관리일 것이며,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은 환기의 실패가 큰 요인이다.

독을 하고 돈사를 출입해야 한다.

### 12. 온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포유 자돈에서 웅돈에 이르기까지 임계상 한온도와 임계하한온도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 13. 철저한 습도관리를 하자.

분만사에 높은 습도는 설사를 유발하고 비육사의 건조한 상태는 호흡기를 유발하므로 서로에 맞는 습도를 맞추어야 한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병원성 세균이나 곰팡이 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소독약을 첨가하여 분무 살포한다. 비오는 날 소독은 분무 소독을 삼가하고 염막 소독으로 대신하여 습도가 너무 높지 않게 한다.

### 14. 환기관리에 역점을 두자.

비육사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환기관리일 것이다.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은 환기의 실패가 큰 요인이다. 배기통을 설치하거나 윈치커튼을 적절히 조절하고 돈분이나 오줌을 가능한 한 제거해 줘야 한다.



### 15. 밀사와 각종 스트레스를 피하자.

비육돈에 중대 악영향은 밀사와 스트레스이므로 여유있는 돈방 확보와 이동을 조절하여 밀사가 되지 않게 한다. 여름철 돼지 이동은 이른 아침에 실시하고 겨울철 소독은 가능한 한 오후에 실시한다.

#### ○출하에 도축까지의 주의 사항

- ① 출하 12시간 전부터 절식시킨다.
- ② 물은 자유로이 먹인다.
- ③ 출하시 때리거나 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 ④ 하절기에는 한낮의 수송을 하지 않는다.
- ⑤ 과밀적재를 피한다.
- ⑥ 가능한 한 암수를 분리해서 출하한다.
- ⑦ 충분한 휴식 후 도축한다.

#### ○돈육의 안전성을 위하여

- 프로그램화된 사양관리에 의하여 철저한 약품관리를 통해 약물의 잔류가 없도록 해야 하고 염증부위나 종창이 된 부분은 비육 출하를 자제해야 한다.

긴박한 경우 약제를 물이나 사료에 혼합했을 때는 휴약 기간을 준수하고 건강한 비육돈만을 출하해야 한다. **양돈**